사설

엑스제 농약 검출

쌍화탕 등 한방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해 온 생약추출물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수입 생약추출물 중 28개를 임의로 선정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천궁 추출물에서 맹독성 농약인 엔드린이 기준치(10ppb)를 넘는 16ppb가 검출되는 등 3개 약재에서 한약재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약사 한약 엑스제 수입이 국내산 약재의 판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생산농가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구나 수입한 엑스제에서 맹독성 농약까지 검출됐다는 사실이 발표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업체들이 수입한 생약추출물은 무려 38만6천8백여 kg이며 엑스제의 수입 물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제약사들의 엑스제 수입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엑스화된 한약재의 가격이 초재 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품목의 제한을 받는데다 수입후 품질검사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엑스제는 해당원료가 함유된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제약사의 자가품질관리에 맡겨져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수월하게 수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선호해 왔다.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약재 조차 엑기스로는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

제약업계에서 자사제품 홍보를 위해 이것저것 첨가되었다고 내세우는 한방생약제제 90%이상이 품질을 믿을 수 없는 수입 엑스제인 셈이다.

이제와서야 보건복지부는 현행 잔류 농약 시험기준 적용대상에 부라부랴 엑스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원천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내 생약재배 농가의 판로를 가로막는 한약 엑스제의 무분별한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규격화 품목 대폭 확대

보사연, 정책토론회서 제기

한방의료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약재 유통·관리 개선 및 가격적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문식 보건정책연구실장과 한국생산성본부 임봉래 책임지도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생약협회 이종용 회장을 비롯 12명의 각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한약재 유통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약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및 가격적 정화를 위하여 규격품목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됐다.

또, 표준규격 및 등급기준 설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내에 가칭 한약품질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표준규격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36개 품목의 규격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격품목의 무조건적 확대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3면〉

◇한약재 유통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관리규정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에 건의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개선 방안에 관한 몇개 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우선, 쿼터품의 배정시, 국내산 한약재의 최근 1년간 수매율이 아닌 품목별 수매율에 따라 차등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이 자체생산한 것도 표준규격에 적합할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칙 3조에 농민뿐 아니라 생산자단체도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독성 농약 개발

농림수산부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저독성 농약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맹독성과 고독성·보통독성 등 3단계로 구분돼 있는 현재의 농약독성구분체계에 저독성을 추가키로 하고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7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진달래꽃, 성인병 치료에 효과

임약원, 36개종 식물 분석

침엽수인 구상나무의 껍질과 진달래꽃이 콜레스테롤의 몰속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산화학과 추출물 연구실의 최돈하, 이학주 연구원 등 연구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12개 침엽수종과 17개 활엽수종 및 초본류 9개종을 대상으로 생리활성을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구상나무 껍질과 진달래꽃의 에탄올 추출물이 콜레스테롤이 몰속 흡수를 촉진시키는 효소인 ACAT(콜레스테롤 아실 진달효소)의 활성을 각각 25%와 43%씩 저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내방

△안덕균 생약연구위원 △문대규 부회장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박만종 고문 △박재문 이사 △이문섭 이사 △이지대 충북지부장 △권순직 부산지부장 △김성배 경기지부장 △박영임 강원지부장 △박영태 경북지부장 △신현석 경기양평군 사무소장 △이인기 경기 포천군 사무소장 △김인욱 경기 연천군 공파장장 △김정동 대전 지부장 △이승엽 전북 지부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 사무소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파장장

슈퍼씨비닐 - 종자 절감에 감탄하고 인력절감에 놀란다

■ 슈퍼씨비닐, 이런점이 좋습니다.

1. 파종, 복토, 비닐멀칭작업을 한번에 할수가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대폭 절감됩니다.
2. 우수한 씨앗만을 엄선하여 필요간격에 따라 정확히 점파할 수 있으므로 발아율이 뛰어날 뿐더러 귀중한 씨앗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비닐 멀칭으로 인해 발아와 성장이 빠르므로 단기 수확이 가능하며 품질도 뛰어납니다.
4. 제초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제초작업이 용이합니다.
5. 파종간격이 일정하여 기계화가 용이합니다.

슈퍼씨비닐 적용작물 종자 소요량 (250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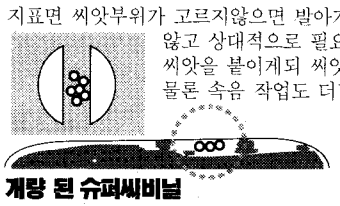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황 기	5 홉	더 덕	10 홉
황 금	4 홉	우 슬	15 홉
도라지	15 홉	현 삼	3 홉

기타 **당귀, 백지, 방풍, 강활, 하수오**등 모든 미세약초종자는 슈퍼씨비닐 가공이 가능하며 그 소요량이 대폭 절감됩니다. 자세한 재배방법은 문의바랍니다.

■ 기존씨비닐의 단점을 완전 보완해 발아율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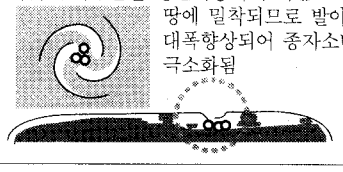
기존 씨비닐

지표면 씨앗부위가 고르지않으면 발아가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필요이상의 씨앗을 붙이게되 씨앗 소비는 물론 속음 작업도 더딤



개량 된 슈퍼씨비닐

씨앗 부착부분을 정밀가공하여 작은 요철에서도 땅에 밀착되므로 발아율이 대폭향상되어 종자소비량이 극소화됨



씨닐農産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2-4 풍전빌딩302호 TEL: 449-8280~1

'96년 슈퍼씨비닐을 선택해주신 농협 작목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